

ECHO

vol.17

개강을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무더운 여름이 끝나가는 지금,
우리의 방학 역시 끝맺음을 준비한다.

17

2018.AUG

EC HO

vol. 17

Engaging
Communicating
Hosting
Outreaching

발행인

김성해 Kim seong hae

편집위원장

우혜정 Woo hye jung

편집위원

Editor - 김나영 Kim na young

Editor - 김고은 Kim go eun

Editor - 김가희 Kim ga hee

Editor - 공유나 Kong yu na

Editor - 손민경 Son min kyeong

Editor - 김윤지 Kim yoon ji

Design - 손민정 Son min jeong

Design - 이다혜 Lee da hye

Design - 전명주 Jeon myeong ju

Photo Editor - 이경연 Lee kyeong yeon

VOL17 CONTENTS :

E

06 이달의 주의자_VOL.17

휴식리듬

C

10 '방학 중 학교는'

항상 끝이 있는 곳엔 남는 것이 있다.

11 피약벌에서 나는 당신을 떠올리네

13 Sea, you tomorrow

〈하루 종일 걸어도 똑같은 풍경은 절대 보이지 않아〉

14 느그 여름 안녕! 우리 겨울 어서 와!

H

16 ECHOPATCH

Hot Summer, Hot Hot

18 알바에도 새내기가 있다

새내기: 대학이나 직장에 갓 들어온 사람

20 개강 전 어디까지 봤니

O

22 2018 여름, 바닷가 뽀개기!

24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행복

28 여름이 부르는 영화와 노래

30 8월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

32 여름철 건강 보양식

34 자취 레시피, 동영상 추천 편

간단한 집 밥 레시피가 있다면 따라 해보실래요?

36 2학기 개강맞이 시간표 자랑

38 作心三日: 개강 5대 거짓말

성공적이고 완벽한 2학기를 계획하고 있는가?

39 잘 정리한 스케줄, 열 약속 안 두렵다

41 Hot한 대외 활동 공모전

44 GET READY WITH ECHO

Summer Trouble/Beach and the Sandal

48 현상소

49 40도라니 여름아



무더운 여름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우리의 방학도 막을 내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방학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17호를 기획했습니다.

Echo 17호와 함께
뜻깊은 방학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E

engaging

이달의 주의자

우리가 주목해 볼만한 이달의 ISM人

VOL.17



휴식리즈

"휴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며
누려야 하는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니까!"

17호 주의자 '휴식리즘' 오주영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저의 기억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휴식을 좋아했던 것 같네요.
아마 휴식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휴식에 집중하게 된 건 큰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 주위에 휴식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직장인이나 수험생분들처럼 개인시간이 부족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분들을 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휴식이 꼭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계기라면 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휴식법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좋아하는 드라마, 영화 보기',

'날씨 좋은 날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산책하기',

'바다 혹은 야경 한없이 바라보기' 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할 때 정말 행복하고, "이게 사람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Q. 방학이 다가오면서 휴식에 좀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조금 모순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평생 휴식만 즐긴다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일과 휴식의 비율을 적당히 유지하는 것.

그게 휴식이 '휴식'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일 그리고 휴식 이 두가지 모두가 과하지 않은 것! 그게 최고입니다

Q. 학기 중 일상에서 추천하는 휴식법은?

중간중간 공강 시간을 활용하면 됩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 마시기, 날씨 좋은 날 친구들과 산책 등

자신이 평소 소소하게 즐기는 휴식을 즐기면 돼요! 그게 바로 소확행!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예 공강인 날을 하루 만들어서 당일치기 여행하기, 하루종일 침대에서 뒹굴거리기도 추천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는 공강 필수인 거 다들 아시죠? (TMI로 저는 아틀 공강입니다^^)

마지막으로 휴식을
대식 글자로 표현한다면
'내 인생의 절반'
입니다.

C

communicating

‘ 방 학 중 학 교 는 ,’

‘대학생은 방학이 두 달이 넘는다고?’ ‘대학생이 되면 방학 때 뭘해야 할까?’ 고등학생 때 늘 해오던 생각이다. 대학교의 방학은 교복을 입고 뺏을 때 항상 화려하고 험기차 보였다. 오랜 시간 전부터 바라왔던 긴 방학이지만 막상 종강을 하고 나니 일주일 동안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어영부영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7월에 접어들어 알바도 하고 가족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여기저기 여행도 다녀왔지만,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 나를 알찬 방학을 보내고 있다고 스스로 위안했다.

7월 말쯤, 학교에 불일이 있어 방학 중에 학교를 찾은 적이 있다. 불일을 다 보고 나오는 길에 많은 사람들과 달리는 차들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어쩌면 그냥 자세히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노을과 밤 풍경이 너무 예뻐서 한참을 서서 사진만 수십 장 찍은 기억이 난다.

그렇게 한적한 학교 풍경을 양껏 구경하고 나니 학교 안의 사람들이 눈에 보였다. 도서관에서 막 나온 것 같은 토익책을 든 학생, 방학이라 몇 안 되는 문을 연 술집에서 시골벽적으로 나오는 학생들, 전공책처럼 보이는 두꺼운 책을 펼쳐놓고 카운터에 앉아있던 편의점 알바생,

모두 자신만의 방학을 잔잔하지만 바쁘게 흘러보내고 있는 것 같았다.

누군가는 열심히 달려온 한 학기를 보상하는 휴식을, 누군가는 바라고 바랐던 여행을, 누군가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나 보내겠지만 딱히 특별하고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기다려지고

한 학기를 또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방학’이 아닐까 싶다. 아직 2학기 종강은 커녕 개강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나의 겨울방학을 위한 비행기 표를 끊었다. 웬지 이 표를 보면 다음 학기의 많은 과제들을 비롯한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모두 웃으며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첫 방학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아쉽지만, 항상 끝이 있는 곳엔 남는 것이 있다.

또이웃들로부터 나는 당신을 떠올리게

2018. 06. XX

긴소매를 입으려 했으나, 금방땀이 날 걸 알고는 제자리에 넣어뒀다.
 살이 타는 것도 싫고 더운 것도 싫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끝에, 그냥 얇은 카디건 하나 챙겨 들고 밖을 나섰다.
 길을 걸을 땐 그늘을 찾아 방향을 이리저리 바꾸며 걸었다. 커다란 한 뼘 크기 나뭇잎의 그림자라도 꼭 그곳을 지나쳐야만 했다.
 햇빛을 직접 마주하면 큰일이라도 생기는 사람 마냥 굴게 된 뚜렷한 계기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래도 어릴 땐 개의치 않고 뛰어놀았던 것 같은데, 여러모로 그때가 참 좋았다고 생각한다.

2018. 07. XX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너무 더워'다. 매년 폭염의 정도가 갱신되는 기분이다.
 끝도 모르고 치솟는 온도는 날 너무 지치게 한다. 그래도 매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요량이라 일자리는 구하고 있었다.
 내가 원하는 시간대와 내가 원하는 동네의 일자리는 쉽게 구해지지 않는다. 이것 또한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나는 이미 한발 늦은 셈이었다.
 오랜 친구가 연락이 왔다. 뭐하느냐, 묻는 말에 아르바이트 구해, 답했더니 대뜸 자기가 사는 곳으로 놀러와라 했다.
 고등학교 때 시험이 끝나면 학교에서 점심 급식을 먹고 무작정 이 친구의 집에 놀러 가 낮잠을 내리 잤던 게 생각났다.
 이제까지 못 잔 잠을 연거푸 몰아 자고나면 같이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먹거나 떡볶이를 만들어 먹으며 TV를 내리 틀어놓고 웃기 바빴다.
 그 와중에 시험 관련 얘기는 일절 하지 않은 채 놀았던 게 서투고 귀여운 배려라고 생각했다. 이 친구는 지금 부산에 산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친구와 있으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안락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기분을 느낀다.
 아직 백수니까, 아직 시간 많으니까, 그래, 하고 대답했다.

2018. 07. XX

더위에 지치면 힘들고 잊고 싶은 기억도 조금씩 수면 위에 드러나기 마련이다.

-
-
-
-
-

이젠 그냥 잊고 싶은데.



2018. 08. XX

알람 소리보다 매미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어난다.

지치지 않고 울어대는 여름 소리. 언젠가 친구와 여름에 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덥고 땀 흘리는 게 싫어서 무작정 여름을 싫어한다는 내 말에 사실은 여름을 좋아한다고 밝힌 친구의 말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여름에만 맡을 수 있는 여름 냄새가 좋아. 그리고 여름의 분위기도.' 수긍했다. 그건 충분한 매력이라 느껴졌다.

따지고 보면 나도 여름에 관한 좋은 기억들이 많았다. 그래도, 그럼에도, 더운 게 싫은 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에 우리 둘은 입을 모아 결론지었다.

2018. 08. XX

언젠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오래전 이맘때쯤 외할머니가 우리 집에 몇 주 머무르셨다.

친정에서 먼 곳으로 시집을 와 당신의 품에서보다 더 오래 지내고 있는 막내딸의 얼굴도 볼 겸,

세월 무서운 줄 모르고 무섭게 자라나는 손주들이 보고 싶어 오셨다고 했다.

외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과 같은 짧은 파마머리가 아니라 정갈하게 아래로 낮게 묶으셨는데, 나는 그게 참 좋았다.

서울 말씨를 쓰는 것도 좋았고, 산책을 좋아하셔서 매일 집 앞 공원을 찾으신다는 것도 좋았고, 이따금 담배를 한 대 피우시는 모습도 좋았다.

예쁘게 물들인 생활한복을 즐겨 입으시는 것도 좋았고, 우리 가족이 일 년에 한 번, 외할머니 생신때 외갓집을 갈 때면 아파트 입구나

베란다에서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도 좋았다. 나는 만두가 좋다. 외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만두는 내가 이때까지 먹은 만두 중 가장 맛있다.

그래서 그때도 만두를 만들어 달려며 어리광 피웠다. 그 때가 너무 좋아서, 외할머니 생신이 여름이라서, 이맘때쯤 꼭 당신 생각이 나더라.

이젠 고운 꽃이 되셨으니 여름에도, 가을에도 나는 당신을 떠올린다.

느그 여름 안녕! 우리 겨울 어서와!

항상 여름파와 겨울파로 나뉘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겨울 얼른!'을 외치고 있다.

여름이 불쌍하지 않냐고 묻는다면 여름 때문에 불쌍한 나 자신이 떠오를 뿐!

여름 외출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나가도 힘들다.

샤워하고 나와서 외출을 감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습한 공기와 피부가 접촉하는 순간 땀이 나기 시작한다.

거기서 외출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다. 무사히 그 과정을 밟은 사람들은 이제 외출하기 위해 신발을 고르는데 옷과 잘 어울리는 스니커즈를 신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조금만 걸으면 아스팔트의 열기가 스니커즈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몇 걸음 걸지도 못하고 아스팔트의 온기에 발 안은 체감 50도!

그렇다고 샌들을 주야장천 신어버리면 발에 예쁜 줄무늬가 생겨버린다. 물론 피서를 간다면 좋겠지만 다 옛날 얘기다.

무서운 폭염의 연속으로 바다는 물론, 야외 수영장, 계곡은 뜨끈한 온천수가 돼버렸다.

여름의 안티 팬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삶의 질만 떨어트리는 여름은 이제 그만! 뽕송뽕송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겨울 어서와!



H

hosting

ECHOPATCH

Vol 17. 누구보다 뜨거웠던 여름

매년 높아지는 기온에 방구석에만, 또는 에어컨이 나오는 시원한 곳에서 놀어지게 되었던 이번 여름에 누구보다 바쁘게, 누구보다 뜨겁게 여름을 보낸 사람이 있다. 태양을 피하지 않고 승부를 겨룬 그 이야기를 들어보자!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현정: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7학번
20살 같은 21살 이현정입니다.

2. 이번 여름을 뜨겁게 보냈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이현정: 네! 저는 이번에 포스코 대학생 봉사단
비온드 12기에 합격하여 봉사활동을 했어요!

3. 우와- 봉사라니 멋있어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이현정: 이번 여름방학 때는 국내에서, 겨울방학 때는
인도네시아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되는 데요.
저는 이번 7월 11일부터 19일동안 전라북도 남원에서
스틸하우스를 짓는 건축 봉사를 하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돼서
엄청 뜨거운 여름이었지만 많은 걸 보고 배우고 느꼈습니다!



4. 와 진짜 멋있는 일 하셨네요! 그런데 어떻게 봉사단에 들어갈 생각을 하셨나요?

이현정: 우연히 '포스코 대학생 봉사단' 모집 포스터를 보게 되었어요!

이번 방학도 알바만 하면서 보내게 될까봐 걱정이었는데

이대외활동을 통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시작했습니다~

5. 후배, 동기, 선배들에게도 방학때 봉사하는 거 추천하고 싶은 생각 있나요?

이현정: 네! 완전 추천이요 ㅎㅎ 내가 아닌 남을 위해 하는 봉사지만

결국 내 자신이 얻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뿌듯함도 얻고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답니다.



6.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요 ㅎㅎ

이현정: 처음에 봉사단 지원할 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서

불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열정을 가지고 제 자신을 어필해서인지

제 간절함을 알아봐줘서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이번 여름방학을 뜨겁게 보낸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

알바에도 새내기 있다

무더운 여름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피, 땀,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알바를 한다.
알바는 경험자한테도 꽤 어렵대!
알바의 늪에서 경험자들이
이제 겨우 숨을 트고 있다면
아직 숨도 못트고 있는 알바 새내기들!

18학번 알바 새내기들의
고군분투 알바기를 들여보려고 한다!

Q1.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어디서 아르바이트 중인지 알려주세요!
자연휴양림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18학번 김기현입니다.

Q2. 자연휴양림에서 맘을 흘리게 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시는 손님에게 제가 차를 빼달라고 하자 화를 내며 잠시만 주차를 한다고 소리를 치셨는데 사장님이 나와서 차를 빼달라고 하시니까 바로 군말 없이 차를 빼셨던 손님이 있었는데 아마도 손님이 제가 알바생이고 학생이라서 만만하게 보고 화를 내셨던 것 같아서 좀 기억에 남는 진상 손님입니다.

Q3. 맘을 흘리면서도 멈출 수 없는 아르바이트,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월급 때문입니다. 여행도 가고 싶고 놀고 싶은데 용돈을 받아서 놀기보다는 직접 벌어서 노는게 더 마음이 편하죠!
(저는 자본주의 세상의 노예입니다.)

Q4. 월급을 받으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앞에서 말했듯이 여행을 가서 휴식을 좀 취하거나, 쇼핑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싶어요!

Q5. 손님, 사장님 등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손님들 휴양림을 이용할 때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알바생이라고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Q1.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어디서 아르바이트 중인지 알려주세요!
농협농산물센터에 농가에서 재배한 마늘을 운반해주는 일을 한 18학번 이상지입니다.

Q2. 마늘 운반을 하면서 맘을 흘리게 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이 일을 하면 20kg키로 마늘 한 망을 농협에 있는 철제 박스에 다시 옮기게 되는데 그러던 중 철에 배여 파상풍에 걸려 이틀 정도 팔에 마비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Q3. 맘을 흘리면서도 멈출 수 없는 아르바이트,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하루 일급이 되게 높았었고 무더운 날씨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제가 자랑스러웠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Q4. 월급을 받으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일단은 항상 일을 하는 저를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조금씩 드리고 싶고, 평소에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여러 곳을 여행을 다니며 열심히 일하였던 저에게 보상을 주고 싶습니다!

Q5. 손님, 사장님 등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마늘이나 양파를 마트에서 사면 썩은 상품을 보면 농가나 그 업체를 훑을 보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직접 운송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니 그때의 훑을 보았던 저의 모습을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슈퍼에서 농산물이 조금 부스러지거나 작은 상해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땀을 흘리게 하는 새내기들의
고군분투 알바기!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응원한다!

알바에도 새내기가 있다

Q1.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어디서 아르바이트 중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대북문앞 파리바게트에서 일하는 중인 18학번 전명주입니다!

Q2. 파리바게트에서 일하면서 땀을 흘리게 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가끔 반말 하신다거나, 짜증이 섞인 말투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끔 어르신들이 오시면 빵이나 음료를 시켜 드시고는 그 자리에 그대로 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심장을 부여잡고 뒷정리를 하곤 했죠. 그리고 특히 여름에는 빙수 만드는 일이 제일 하기 싫은 노동인 거 같아요!

얼마 전에는 600원짜리 슈 하나 구매하시고는 테이블에 앉아서 목 베개까지하시고 코를 골면서 한 시간 반을 자다가 가신 분이 계셨는데 그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Q3. 땀을 흘리면서도 멈출 수 없는 아르바이트,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르바이트하다 보면 반말과 인상을 쓰시며 신경질적으로 말을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같이 웃으면서 대답해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 힘이 들다가도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거 같아요! 그리고 손님들의 감사하다는 한마디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생각보다 기분 좋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 중에 최고는 월급날 통장 찍어 봤을 때의 쾌감이 아닐까요?

Q4. 월급을 받으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전 월급통장을 부모님께 맡겨서 관리하기때문에 받는 월급으로 하는 일은 딱히 없지만, 이번 여름 방학때 첫 해외여행을 갈 때 경비를 월급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월급 모아서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여행 가고 싶어요.

Q5. 손님, 사장님 등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알바생들이 공감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손님들이 주문하실 때 반말이나 명령조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카드나 현금을 던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쁜 시간대에 짜증을 내며 재촉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알바생도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조금만 조심하면 서로 기분 상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알바생들의 고충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저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최저 시급 안주는 사장님들 나빠요!



개강 전 어디까지 봤니?

대학생의 방학은 두가지로 나뉜다. 용돈벌이를 위해 알바를 하거나, 집에 콕박혀 방콕을 하거나. 그 중 집에 콕박히는 방콕생활을 한다면 보통 자신이 보고싶었던 드라마나 영화를 돌려볼 것이다. 그런 방콕러에게 물었다. '개강 전 어디까지 봤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학을 해서 오랜만에 방학이라는 걸 보내고 있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4학번, 2학년, 김은수입니다.

"방학때 몰아서 보신 드라마나 영화 있으신가요?"

저는 2년 동안 군생활을 했고, 1년은 일을 하게 되어서 방학이라는 것을 되게 오랜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시간이 붕 떠버려서 뭘 해야 할까 하다가 평소에 영화 보는 것을 즐기는 편인데, 방학 동안엔 제가 좋아하는 '지브리 스튜디오' 의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브리 스튜디오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제가 어렸을 땐 영화를 다운 받는 사이트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들고오시는 CD로 영화를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 그 CD를 통해 처음 지브리 스튜디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에서 나온 지브리만의 색깔, 내용, OST, 그림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게 되었고, 저는 서울 세종 미술관에 지브리 대박람회를 다녀올 정도로 지브리를 좋아합니다.

"지브리 스튜디오의 영화가 꽤 많은데 그중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두개가 있는데, 첫번째는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입니다. 추천 이유는 사실 그 영화가 지브리 스튜디오가 생기기 전에 나온 지브리 스튜디오의 첫 영화인데, 이 사실에 의미가 있어서 더욱 추천해 주고 싶은 영화입니다. 지브리 스튜디오를 좋아한다면 이 영화를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다들 한번쯤은 보셨을 모노노케 히메, 월령공주라는 영화입니다. 다른 애니메이션 처럼 재미도 좋고 창신한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추천 드린 영화뿐만 아니라 지브리 스튜디오의 대부분 영화가 다 내용도 좋고, 색깔도 좋아서 그냥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スタジオジブリ
STUDIO GHIBLI



유난히 더운 이번 여름,
 녹아내릴 듯한 뜨거운 날씨에
 휴가생각은 더욱 간절해진다.
 여름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계획하고 있거나 휴가의 기억을 되살리고 싶은
 당신을 위해 에코에서 추천하는 바닷가 뽕개기!

2018 여름, 바닷가 뽕개기

-경포해수욕장 (강원도 강릉시 안현동 산1-1)

다양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익사이팅한 여름 휴가를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

모래사장 바로 뒤에 소나무 숲 산책로가 있어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산책도 할 수 있다고 한다.



-을왕리 해수욕장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서로 302번길 16-15)

서울근교의 해변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그늘이 거의 없고
 바닷물이 깨끗하지 않으며 바닥에 뽕족한 자갈이 많아 물놀이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비추! 하지만 해가 질 시간에 아름다운 빨간 노을을
 볼 수 있어 감상용 바닷가로 많이 찾는다고 한다.



-광안리 해수욕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19)

바다하면 부산이 빠질 수 없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버스킹 소리와 함께 광안대교를 바라보며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헌팅의 메카 수변공원은 핫플 중의 핫플!



-협재 해수욕장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497-1)

많은 이들의 여름방학 위시리스트인 제주여행, 협재해수욕장에서는 새하얀 모래와 밝은 에메랄드색 바닷물을 볼 수 있어 해외에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대천 해수욕장 (충남 보령시 신항동 1029-3)

서해안 최대규모의 해수욕장인 대천 해수욕장. 바다 위를 613m 활강하는 짚라인과 왕복 2.3km를 바다 위에서 이동하며 바닷가 풍경을 볼 수 있는 스카이버이크가 유명하다. 머드축제 기간에는 갯벌에서 머드축제까지 즐길 수 있다.



HAPPINESS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행복

우리의 여름은 아직도 뜨겁다

무더위가 채 가시질 않은 길바닥

그 위에서 서있다 보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

살아있음을 죽을 것 같음으로 느끼게 되는 올해의 여름

하지만

뜨거운 여름이기에, 지금이기에 즐길 수 있는 행복을 만끽해보자.



‘까슬까슬한 이불의 촉감’

이불과는 확연히 다른 약간 거친 느낌,

여름에는 역시 까슬까슬한 이불이다.

발끝과 손끝에 닿는 이 촉감이 왠지 여름 별으로 지친 우리를 위로해주는 듯하다.



구름이 잠시 해를 가리고, 내리는 소나기는 여름을 더욱 짙어지게 한다.

키 큰 나무에서도 발언저리의 잔디와 풀들에게서도 파릇한 청록색의 여름 냄새가 난다.

‘소나기가 내린 뒤 풀내음’

‘카캉스’

여름 시즌 한정 디저트는 지금이 아니면 즐길 수 없다.

좋아하는 사람과 혹은 혼자서 여름 디저트 도장깨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 아닐까.

상큼한 제철과일로 만든 빙수.

커피가 담긴 유리잔에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여부 영화와 름르 노래 이는 노래

Movie

40도를 찍은 올해의 여름, 이런 날씨에 밖에 나가기 위해 문을 열면 열자마자 숨 막히는 고통을 느낄 것이다. 그럴 땐 집에서 보내는 휴가가 최고가 아닐까? 에어컨을 켜놓고 침대 위에서 얇은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것과 잘딱궁합인 영화와 노래를 추천한다.



Drowning Love, 일본 2016

물에 빠진 나이프

도쿄에서 시골 마을로 이사 온 소녀와 개성적인 소년의 만남을 중심으로 10대 특유의 따끔거리는 한 청춘의 날들을 묘사하는 영화이다. 만화가 원작이라서 유치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영화에서 스다 마사키와 고마츠 나나가 표현하는 분위기가 영화에 한층 더 빠지게 해준다. 그리고 일본의 여름 하면 바로 하나비! 영화에서 진지한 장면이지만 영화 속에 들어가 하나비를 느껴보고 싶고 일본의 여름을 잔뜩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감독: 아마토 유키
출연: 스다 마사키, 고마츠 나나

Moana, 미국 2016

모아나

몰아치는 파도와 주인공들, 포스터만 봐도 시원함이 느껴지는 영화! 영화 모아나는 폴리네시아의 문화를 배경으로 한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다. 바다가 선택한 소녀 모아나는 저주에 걸림 모두누이 섬을 구하기 위해 전설의 영웅 마우이와의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이다. 바다에서 펼쳐지는 모험이 이 더운 날 우리를 더욱 시원하게 해줄 것이다.

영화를 보기 전 폴리네시아 문화에 대해 공부해서 가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우이'가 변신을 할 때 다양한 동물들로 변하는데 아주 짧게 '거울왕국'의 순록 '스벤'으로 변하는 장면과 '주먹왕 랄프'의 주인공 '랄프'는 엔딩크레딧에서 Cameo로 나온다고 하니 이런 점도 기억하면서 보면 재미는 두 배!



감독! 론 클레멘트, 존 머스커
출연! 마우이 크라발호, 드웨인 존슨

Summer Of Kikujiro, 일본 1999

기쿠지로의 여름

'기쿠지로의 여름'은 잔잔하지만 일본식 개그도 볼 수 있는 코미디 영화이지만 일본의 여름을 맘껏 느낄 수 있고 따뜻함까지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영화이다. 영화 자체 뿐만 아니라 주제곡 히사이시 조의 'summer'도 매우 유명하니 방학이 끝나가기 전 한 번 보는 것을 추천한다.

감독! 기타노 다케시
출연! 기타노 다케시
! 세키구미 유스케





PARADISE 신현희와 김루트, 2018

전국을 오빠야 열풍으로 만든 밴드 신현희와 김루트의 신곡으로 신현희와 김루트만의 감성과 유쾌한 매력을 파라다이스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지겨운 하루를 떠난다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파라다이스는 여름 신곡에 걸맞은 바캉스를 연상시키는 노래이다.

여가친구, 2016 물곶놀이

여가친구의 여름 노래하면 이번 신곡인 '여름 여름 해'가 떠오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물곶놀이'를 추천해보려고 한다. '너 그리고 나'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훔날리는 파도의 물곶을 불곶놀이에 빚댄 노래이다. 여가친구만의 파워와 발랄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돌만의 여름, 2013 우쿨렐레 피크닉

우쿨렐레 피크닉은 인디 혼성 그룹으로 노래에 실제로도 우쿨렐레를 사용하고 있다. 여름휴가를 돌이서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한번 들으면 계속 생각 나는 리듬을 가지고 있어 이제 매년 여름마다 '돌만의 여름'이 생각나는 날 것이다.

Hola Hola KARD, 2017

믿고 듣는 신용카드라는 별명이 생긴 KARD의 Hola Hola는 딱 듣는 순간 푸르고 청량한 바다와 뜨거운 태양 그리고 아자수가 생각나게 하는 트로피컬 하우스 장르의 EDM 멜로디를 엮은 곡이다. 전형적인 라틴계 댄스음악을 재해석한 그루브 한 여름 곡으로 춤을 안 출 수가 없는 노래이다.



8월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

6월에 종강을 하고 본가로 돌아온 것도 엇그제 같은데, 벌써 8월이 되었고어느새 우리는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요. 개강을 하기 전 뭔가 알차게, 신나게 보내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집에 가만히 있다면 저희 ECHO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대로 남은 8월을 보낸다면 신나고 재미있고 잊지 못할 8월이 되지 않을까요?

1. 8월 개봉 영화 보기

요새 이렇게 더운 날 밖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것 보단 실내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영화 한편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8월에는 웹툰을 원작으로 한 신과 함께부터 90년대 실화를 배경으로 한 공작까지 재미있는 영화가 한 두편이 아니랍니다. 영화관에서는 영화관 매점이 아주아주 맛있답니다. 아! 영화관에서 팝콘 뿐만 아니라 햄버거 치킨 등 외부음식 반입이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캔맥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화 보러 가기 전 두 손 가득 들고 시원하게 영화보세용!





2.오빠네 놀이터

대구동성로에 가면 '오빠네 놀이터' 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곳은 가게 이름이 놀이터인 것만큼 정말 놀거리가 가득하답니다.여기저기 이동할 필요 없이 노래방 , 오락실 , 당구장 , 심지어 안마기까지 있습니다.이것저것 놀다 보면 출출하겠죠? 그럴 땐 셀프바를 이용해서 쥐포나 토스트, 간단한 과자류도 얼마든지 가져다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포토존이 천지라고 합니다. 예쁜사진도 많이 찍고실내에서 놀고 싶다면 추천추천!

3.합천 옐로우리버비치

요새 워터파크의 수질 문제 때문에 워터파크는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한다면 바로 '합천 옐로우리버비치' 를 추천합니다 ! 우선 가격은 워터파크보다는 저렴한편이고, 워터파크 보다 훨씬 더 액티비티 하게 놀 수 있습니다.천연 워터파크라서 수질 문제도 걱정 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다녀 올 수 있습니다. 너무 커서 하루만에 놀이기구를 다 못 탈 정도로 크다고 하네요 ! 남은 8월에는 물놀이도 하고싶고 조금 더 액티비티 하게 놀고 싶다면 '합천 옐로우리버비치' 를 추천 드릴게요!

4.스노우 파크

요즘처럼 폭폭 찌는 날씨에 더위를 피하기 위해 집에서 에어컨만 틀지 말고 시원하게 놀 수 있는 '스노우 파크' 라는 곳이 있다고 하네요.많이 춥지는 않지만 스노우 파크에서는 겨울 패딩 , 방수바지 , 겨울 옷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주위에 놀이기구도 몇 개 있고 더운 여름 겨울의 느낌을 느끼기에는 이 곳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 아이스링크장 뿐만 아니라 눈썰매를 타는 곳도 있다하니 여름을 피하기에는 딱 좋은 곳입니다!

여름철 보양식



©홍익궁중전통음식재창

40도까지 올라간 뜨거운 여름,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더워서 금방이라도 통감자가 될 것 같은 기분! 너무 더워서 축 처지고 힘도 안나는 당신들을 위해 ECHO가 당신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면서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여름만 들어도 몸이 건강해지는 **건강 보양식을 추천한다!**

1. 육개장

'이열치열'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는 뜨거운 음식으로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다. 육개장은 더운 날씨에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는 것이 좋으며 콩나물 대신 숙주를, 건더기가 조금 부족하다 생각되면 대파를 크게 송송 넣는 것도 방법! 육개장 안에 들어있는 쇠고기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이 적은 부위를 사용하는데 철분이 다량 함유돼 있기 때문에 여름 보양식으로 딱 좋다!

2. 삼계탕

여름 보양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바로 삼계탕! 삼계탕의 주재료인 닭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무더운 한여름의 기운을 열로 다스린다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한다. 우선, 닭을 손질하고, 손질한 닭 안에 마늘, 밤, 불린 찹쌀, 녹두, 대추를 채운 후 다리를 묶어 끓인 육수와 함께 압력 밥솥에 푹 끓이면 뜻뜻한 삼계탕 완성! 밥 한 공기 짹 채워서 삼계탕 국물과 함께 먹으면 몸보신 끝!



여름철 보양식

3. 콩국수

여름철 진하고 고소한 콩국수 한 그릇이면 더위가 싹 날아가면서 없던 입맛도 생길 것 같은 기분이다. 콩국수에 들어가는 콩은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면서 무기력해진 여름철에 딱 좋은 음식이며, 피로회복을 돕고 혈관을 튼튼하게 유지해준다. 콩국수의 콩국에는 노란 메주콩을 쓰는 편이지만, 서리태나 장단콩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오정연@김밥

4. 전복 버터 구이

여름 보양식 하면 '전복'도 빠질 수 없다고 한다. 전복은 해산물 중에서도 명품으로 불릴 만큼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이라고 한다. 전복을 활용한 요리로 아기들 입맛에 딱 맞는 '전복 버터 구이'가 있다. 전복을 손질하고 마늘과 버터를 함께 볶아 전복을 넣고 추가로 허브 솔트를 넣어 구워주면 된다! 전복 손질 하는 방법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칫솔로 깨끗하게 손질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한다.



자취 레시피, 동영상 추천 편



하루하루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와중에, 요리는 또 얼마나 귀찮은지.
살기 위해 먹어야 하지만, 인스턴트랑 배달음식은 좀 지겹고, 집밥은 그리워지지 않나요?
만약, 간단한 집밥 레시피가 있다면 따라해보실래요?

1. Cookcat Korea - 참치폭탄치즈밥 <https://youtu.be/0l11ean-lR4>

뚝배기에 조리하는 거로 나오지만, (실상 그게 더 맛있지만) 자취생에게 뚝배기 있는 게 흔하지는 않으니, 일반 냄비로도 조리합니다. 참치와 치즈가 만나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저기에 양파, 스위트콘 등,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지만 (그게 더 맛있지만) 김치와 참치, 그리고 기본 양념 재료들만 넣어서 만들어도 비슷할 거라 자부합니다.



2. Cookcat Korea - 간단바지락칼국수 <https://youtu.be/RCtW42VOgkw>

바지락 칼국수, 이렇게 만들면 맛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자취하면서 바다 친구들과도 좀 친해지면서 살자구요,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바닷가 앞 식당에서 먹는 퀄리티가 나올지는 미수일지라도, 비 오는 날 분위기 내기에 이만한 거 없죠.

3. 해먹남녀 - 간단하게 즐기는 '간장비빔국수' <https://youtu.be/KArzc7ySjp8>

간장계란밥보다 더 쉽고 맛있다는 간장비빔국수 레시피입니다. 거창한 재료 필요 없어요. 기본 재료로도 맛있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 제발 만들어서 먹어주세요. 면만 삶으면 요리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4. 해먹남녀 - 쓰린 속을 달래주는 간단해장국 <https://youtu.be/dVDgapxyj4o>

술마실 일이 잦아질 때, 다음 날 숙취에 쓰린 속을 안고 그대로 강약실을 가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미리 끓여놓고 소분해서 냉동실에 얼려두면, 바로바로 전자레인지에 돌려 뜨끈하게 해장할 수 있어요! 우리 쓰린 속은 그때, 그때 달래줍니다.

2학기 개강맞이 시간표 자랑

개강이 다가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수강신청!
수강신청은 학교를 몇 년을 다녀도 항상 새롭고 떨리고 긴장의 연속이 아닐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코가 준비한 2학기 개강맞이 대학생들의 시간표를 만나봅시다.

	일	화	수	목	금
9					
10				PR공고이론 사 1310	
11					
12			미래설계 인2-2404		
1					
2			전문커뮤니케이션 영문리쓰실레마 사1304	평상스프링엔리 기 사1307	
3					
4					
5					
6					

1. 젓가락 행진곡

이게 바로 4학년의 힘? 3일 공강, 자유는 나의 것.
하지만 4시간 연강에 해 뜨자마자
수업 시작해서 해지면 수업 끝?!

	일	화	수	목	금
9					
10			문제		피부기록
11					
12					
1			역사기	건강보험	음악 작곡
2		영어학			
3	장영		비용	역사기	
4					
5					
6					

2. 오후엔 테트리스?

수업이 거의 오후에 모여있네요.
통학러와 아침 수업이 힘든 사람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후엔 거의 테트리스 한 듯이 빈틈없이 색칠되어있네요.
시간표 주인공은 점점 해탈한 건지
시간만 기록하고 과목을 적지 않은 모습도 보이네요.
파이팅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9	정신간호학			아동간호학	
10					
11	장인간호학	정신간호학	정신간호학	건강과노화	정신간호학
12					
1					
2		아동간호학	건강과노화	정신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3					
4		여성건강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5					
6					

	월	화	수	목	금
9					
10			컴퓨터 음악 8304		화성학 8101
11		실용음악 이론 8102		적사법 8101	
12	대학 생활과 진로 보충 803				
1	제이원 보컬 8304	시창 창곡 8102	미디 8304	대안-관계 능력 8402	
2					
3		보컬 전공			대중 음악의 창작 8306
4	기초 발성법 8402			음역스 피아노 2505	
5			음향 제작 제독전	위클리 관서문	작곡 부전공
6					
7					

3. 나의 점심시간은 꼭 지키다.

이 시간표는 거의 고등학생 아닌가요? 오전 수업과 오후 수업이 뿔뿔..

하지만 점심은 꼭 먹고 수업 들으라고

점심시간은 센스 있게 딱! 한 시간 비어있네요....

역시 사람은 밥 힘인가요?

4. 이게 계단인지, 빙고판인지

수업이 무려 16개 믿기시나요?

저는 보고도 저 시간표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건지 믿기지 않네요.

시간표를 보니 하루에 수업이 무조건 3개씩 꼭 빠지지 않고 있네요.

심지어 금요일은 아침 수업에 공강 3시간 후 다시 수업.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불금인가요?

개강맞이 시간표 자랑

작심삼일

개강 5대 거짓말:

방학이 끝날 무렵, 수강신청을 하고 나면 이번 학기는 새롭게 태어나리라 다짐을 하게 된다. 하지만 짧으면 개강 첫 날부터, 길면 개강 후 한 달이 고작일 허망한 다짐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성공적이고 완벽한 2학기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번에는 모든 수업 출석률 100%에 도전해본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아침 6,7시에 일어나던
고등학생이었지만 이젠 해가 떠도
일어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이번 학기에는
반드시 출석점수만큼은
확실하게 지키겠노라고 또 다짐해본다.



“이번에는 시험공부는 한 달 전부터 할거야.”
자매상품으로는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가 있다.

4주 전부터 한 손에 전공서적을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도도한 자세로
도서관으로 향하는 나를 상상해본다.
벌써 과탐이 된 기분이다.



“이번에는 공모전 나가서 상 하나 타야지!”

진정한 대학생이라면 며칠 밤을 새며
팀원들과 열띤 토론 끝에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에 청춘을 써야하는 법!
마지막엔 공모전에서 수상까지!
수상소감은 뭐라고 하지?



“이번에는 돈 아껴 써야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게 돈이지만 돌이켜보면
나에게 돈은 항상 없었다. 이번학기 만큼은
정말 돈을 아껴 쓰고 다음 방학 때
여행을 가야겠다고 다짐해본다.



“이번에는 연애해야지..”

캠퍼스 곳곳에 손잡고 다니는 커플들을
애써 못 본 척하며 걸던 지난날의 나는 안녕!
이번에는 내 반쪽을 찾아 알콩달콩
죽고 못 사는 CC를 해보고 말리라.

어쩌면 매 학기마다 되풀이 되는 우스갯소리에 가까운 거짓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뭐든 좋다. 당신이 생각을 넘어 꾸준한 행동을 보인다면 진짜 이를 수 있다는 것만 잊지 않는다면!



약속해줘~

잘 정리한 스케줄, 열 약속 안 두렵다

약속에, 과제에, 예상치 못한 번개에 일정이 여러 번 꼬여 당황한 적 없나요?
하루에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 탓에 두어 개를 놓친 기억은요?
약속을 잡아도 그 날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던 당신에게
스케줄 딱 두 개 **애플리케이션**을 예코가 보여줄게요.



1. Do! (무료)

이 애플리케이션은 심플해서 좋아요.
당신의 To Do 리스트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하고 체크하고 편집할 수 있어요.
별다른 어려운 기능은 없이 To Do 리스트 본연의 목적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 위젯으로도 변경 가능하니 더욱더 좋죠?

2. TimeBlocks (무료)

기존의 캘린더, 스케줄러 애플리케이션들과 뚜렷한 차이점은 아직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내장된 색깔이 참 예뻐서 소개해요.
알록 달록 예쁜 색깔로 배치되는 일정 블록들과 기존의 휴대폰 캘린더와
연동이 가능하답니다. 아, To Do 리스트 기능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이건 예뻐서 가르쳐주는 애플리케이션이에요.



※ 심플하고 일목요연한 건 좋으나, 손 글씨가 아직도 좋은 분들이 있는 거 다 알아요.
 손으로 일정을 적고 정리하며 책상에 딱 전시해놓는 그 기쁨.
 저렴하고 예쁘게 누리고 싶은 분들은 어서 다이소로 달려갑시다!



1. 핸디형노트패드 스케줄러 플래너

A4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의 위클리 스케줄러입니다.
 심플한 디자인으로 되어있어 마구마구 쓰고 싶어지는 마음을
 참을 수가 없는 제품이죠. 총 30개월 분량의 위클리 스케줄러와
 프리 노트 3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니, 너무 좋지 않나요?

위클리 타임즈 | 다이소물 6800원

2. Todays things to do 메모 메모 패드

예쁜 색감에 착한 가격, 실용성 가득한 To Do 메모지입니다.
 위클리 스케줄러 타입, To Do 리스트 타입, 시간 타입, 무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일정을 정리하는 사람이나에
 따라 입맛에 골라 쓰시면 됩니다!

다이소물 1800원 | (S)



약속해줘~

우리 모두 똑똑하게 스케줄 관리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내일을 만나요!

잘 정리한 스케줄, 열 약속 안 두렵다

HOT한 공모전/대외활동

List

이번 방학동안 충전한 에너지! 어딘가에 써야겠다면,
ECHO가 추천하는 공모전/대외활동은 어떨까요?

광고/마케팅

마감기간	주최기관명	활동명	혜택
8월 24일	스마트교통복지재단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청소년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70만원
8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	2018 S-IDEA 스포츠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 500만원
8월 24일	환경부	미세먼지 해결 돕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1등 50만원
8월 26일	신세계TV쇼핑	제1회 신세계TV쇼핑 비디오 커머스 콘텐츠 공모전	대상 300만원
8월 31일	넥슨컴퓨터박물관	가상현실(VR) 콘텐츠 공모전	총 1,000만원
9월 2일	해외자원개발진흥재단	제4회 해외자원개발 바로알기 공모전	총 4,000만원
9월 9일	한국제지	한국제지 브랜드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300만원
9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제10회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 광고 공모전	총 1,900만원
9월 16일	특허청	충남 365 발명대회	대상 100만원

디자인/사진/음악/UCC

마감기간	주최기관명	활동명	혜택
8월 24일	부산광역시	2018 ICT 비즈니스 IDEA 공모전	대상 200만원
8월 26일	신세계TV홈쇼핑	너만의 맛있는 1분을 만들어봐	대상 300만원
8월 29일	식약처	식약처 25초 영화제	총 1,000만원
8월 31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제4회 산업보안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500만원
8월 31일	울포유	울포유 창립 30주년 디자인 공모전	대상 500만원
9월 2일	국립부산과학관	제3회 과학 웹툰 공모전	대상 150만원
9월 2일	제주도특별자치시	제주올레 히든 디렉터 컨테스트 영상 공모전	대상 300만원
9월 3일	국토교통부	2018 월드 스마트시티 사진 공모전	대상 200만원
9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나트륨/당류 줄이기 캘리그래피 공모전	최우수 100만원
9월 14일	대한체육회	생활체육 스포츠7330 UCC/사진 공모전	대상 100만원

국내 봉사프로그램

마감기간	주최기관명	활동명	기간	혜택
8월 24일	대학문화 네트워크	제17회 대학로문화축제 자원활동가	1개월	봉사시간 인증, 식사제공 등
8월 29일	조록우산어린이 재단 부산본부	3기 조록우산 나눔홍보단	5개월	자원봉사시간 인정, 수료증 발급 등
8월 30일	서울특별시	아리랑 페스티벌 자원활동가 아랑	3일	활동인증서 발급, 자원봉사실적확인서 발급 등
9월 30일	사) 세계음식 문화연구원	2018 대한민국 향토 식문화대전 자원봉사자	3일	박람회 무료초청장 발급,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등

해외탐방 프로그램

마감기간	주최기관	활동명	기간	혜택
선착순 마감	워너고트립	가을 시즌 베스트 유럽 31일	1개월	봉사시간 인정, 워너고트립 인턴기회제공 등
	코아인	워크 페스티벌	18일	수료증 발급, 우수활동자 장학금 수여 등
	아시아 희망캠프기구	겨울희망캠프 in japan	5일	협의
수시모집	KYPA	한국청소년진흥협회 라오스 후원학교 개인봉사자 모집	자율	봉사인증서 발급
	CAMBO FRIEND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아프리카 케냐 개인교육봉사 프로그램	자율	봉사인증서 발급

참고 | 아웃캠퍼스

HOT한
공모전/대외활동

List

이번 방학동안 충전한 에너지! 어딘가에 써야겠다면,
ECHO가 추천하는 공모전/대외활동은 어떨까요?

*Summer trouble!
trouble!
trouble!*

끝날 듯 끝나지 않는 폭염 속에서 피부가 점점 망가지고 있다면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케어 솔루션을 알려드릴게요.

Trouble 1. 블랙홀처럼 열린 모공 무더운 날씨에 T존을 중심으로 모공이 넓어진 피부



trouble!
Summer trouble!
trouble!

Solution 1. 피부 온도를 낮춰 더 이상 모공이 넓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수분감 있는 스킨

- 키엘 카렌둘라 허벌 엑스트랙트 토너 250ml 59,000원
- 에프뒤드하우스 순정 약산성 5.5 진정 토너 350ml 23,000원

Trouble 2. 폭발하는 유분과 땀으로 자꾸 지워지는 메이크업



Solution 2. 하루종일 처음 메이크업한 상태로 유지해주는 아이프라이머와 메이크업 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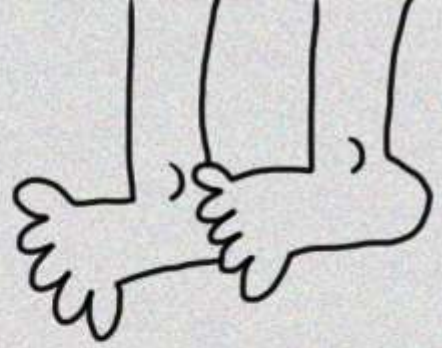
- VDL 엑스퍼트 컬러 프라이머 포 아이즈 6.5g 15,000원
- 문샷 멀티 프로텍션 유브이 픽서 SPF50+ PA+++ 40ml 25,000원

Trouble 3. 왕성한 피지분비로 난 증살 여드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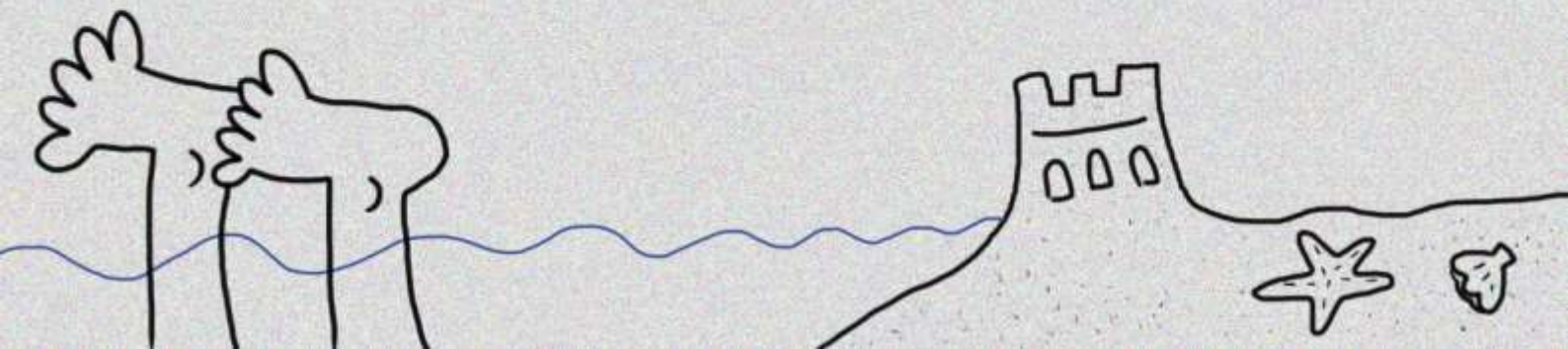
Solution 3. 각질을 정리해줄 각질패드와 진정효과가 있는 마스크 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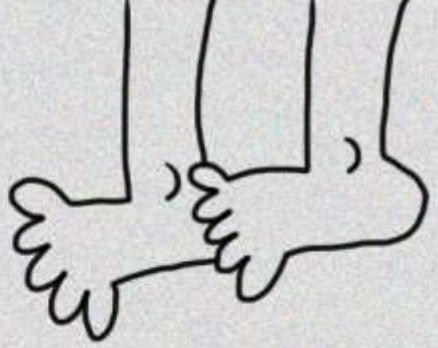
- 벨라몬스터 포어 아웃 솔루션 수박패드 155ml(70매) 17,000원
- 닥터자르트 더마스크 워터젯 수딩 하이드라솔루션 25g 14,000원



Beach and the Sandal

아무리 예쁜 비치 웨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이상해 보이는 이유는 뭘까?
바로 신발이다! 옷과 어울리지 않는 신발은 전체적인 부조화를 만들어낸다.
뜨거운 여름 우리의 비치 웨어의 완성도를 높여 줄 Sandal들을 소개하겠다!





Crocs 크록밴드 플립(가격: 29,900)

해변에서 아쿠아 슈즈를 신는다면 그건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산 것과 다름없다!
흔히들 말하는 쪼리(플립플롭)이지만 굳이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200g 정도의 가벼운 무게감,
무난한 디자인과 할인 행사를 하면 2만 원보다 싼 가격에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착한 샌들이기 때문이다.
'Simple is the best'라는 문구처럼 심플한 색상은 화려한 비치웨어와 훌륭한 코디를 보여 줄 것이다.

Birkenstock 지제 BF 샌들 스톤 네로우(가격: 99,000)

쪼리(플립플롭) 한층 상승한 디자인으로 신고 벗기가 편하다.
디자인 자체가 독특하지만 색상이 튀지 않아 비치 웨어는 물론 데일리 룩에서도
유용하게 코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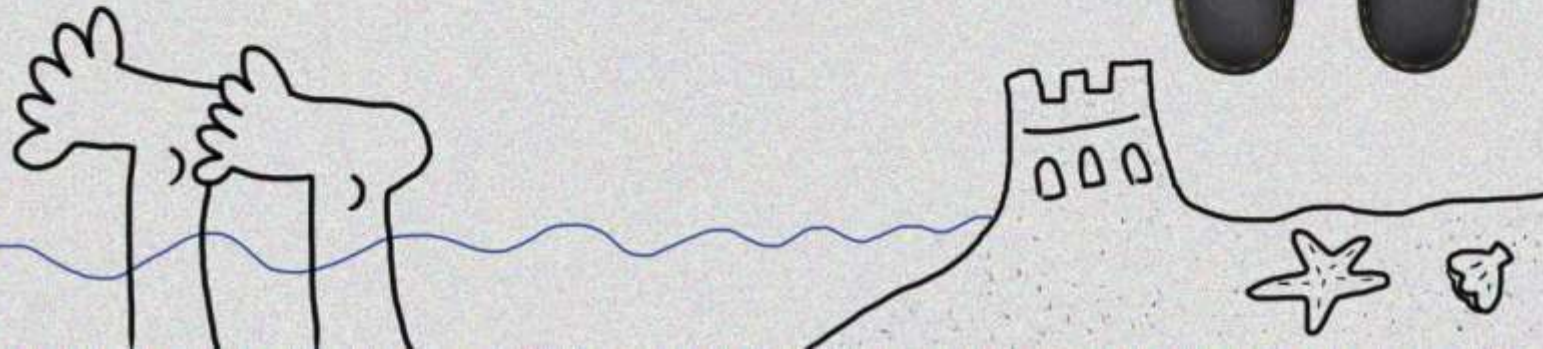


Dr.martens Kristina (가격: 168,000)

독특한 모양의 샌들이다. 샌들을 고정하는 끈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묶을 수 있다.
샌들치고 좀 높은 굽을 가지고 있지만, 쿠션감이 괜찮은 제품이다.
신발의 디자인이 화려해 단색의 원피스 수영복과 코디하면 샌들로 포인트를 줄 수 있다.

Dr.martens Myles (가격: 168,000)

스트랩이 하나인 기존의 샌들과 달리 두 개의, 스트랩으로 발에 안정감을 주는 제품이다.
기존의 심플한 샌들이 아닌 스트랩에 버클을 달아 독특함을 더 했다.
또한, 닥터마틴의 상징인 노란 스티치가 들어가 포인트가 살아있는 샌들이다.
샌들이 중심을 잡아 비치웨어와 코디를 했을 때 약간의 무거운 느낌을 줄 수 있다.



VOL.17



現像所
ILLUSTRATION



40도라니 여름아

Editor 김나영: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속이 후련했냐!

김고은: 이제 진짜 제발 제발 제발 그만해...

김가희: 겨울 되면 또 보고 싶을 거 같지만 이걸 너무했잖아!

공유나: 여름아! 우리 당분간은 보지말자..

손민경: 언제까지 구질구질하게 그럴래

우혜정: 이제 제발 가고 우리 겨울 데려와줘

김윤지: 내년에는 보지말자!

손민정: 여름아 너도 열받니? 나도.. Designer

이다혜: 어쭙 이것봐라 내년엔 50도 찍겠다?

전명주: 우리 그만 헤어지자,..

이경연: 하시X답다

